# 장흥정남진 편백숲에 모노레일 깐다



장흥군은 지난 2일 (주)에이엠티와 군 대표 관광지인 우드랜드 일원에 모 노레일을 설치하는 투자협정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유상호 장흥군의회 의장, 김정태 (주) 에이엠티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명 이 참석했다.

정남진 편백숲 모노레일 설치사업 은 장흥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 (주)에이엠티와 우드랜드 일원 투자협정 MOU 2023년까지 134억원 투입해 2.8km 규모 복선

투자 사업으로, 2023년까지 134억원 을 들여 우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소금 찜질방, 천문과학관을 경유, 억불산 정상에 이르는 2.8km 규모의 복선 모 노레일과, 차량 15대, 전망대 등을 설 치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자 (주)에이엠티는 2019년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와 함께 한국 관광공사에서 '한국 관광의 별'로 선 정한 충북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테마파크에 올해 3월 모노레일 시설 을 준공한 실적이 있는 중견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2개소의 '관광의 별' 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 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억불산의 수려 한 경관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고 험준 한 지형 때문에 관광약자의 접근이 어 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약자 를 위한 새로운 복지관광수단을 제공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모노 레일 설치사업은 최근 제정된 관광약 자 지원 조례와 더불어 군의 발전전략 인 4시티의 '노인 공경ㆍ아동 친화 도 시'의 일환이며, 우리군 대표 관광지 인 편백숲 우드랜드가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군, 딸기 연막방제기 사업 추진

친환경 확산제 사용해 안전하고 방제 효과도 높아

강진군은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 으로 딸기 연막방제기 실증사업 설명 회를 가졌다.

연막방제기는 딸기 재배 농업인들 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응애 방제에 탁 월한 효과가 있지만, 경유나 휘발유를 확산제로 사용해 농업인이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충남의 한 업체에서 친환경 확산제를 유기농자 재로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문제점 이 보완되어 실증사업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설명회 를 통해 올바른 연막기 사용법, 농약 적정사용량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시연을 통해 약해 없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딸기 재배농가 27명에게 사 업비 2,160만 원을 투입하여 연막방제 기와 확산제를 보급하고, 사업효과와 수요를 분석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매년 응 애 피해로 수확량도 떨어지고 방제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는데 연막방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전국 농촌 모델 만든다



제기를 사용해 편리하게 방제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딸기는 우리군 의 주요 소득 작물인 만큼 안전 농산

물 생산을 위해 농업인들과 공직자가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올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

실시간으로 신비의 바닷길 등 유튜브·페이스북 생중계

진도군이 27일부터 29일까지 열 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한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진도 신 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전면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 계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뽕할머니 제례와 진도북놀이 등 진도만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 는 물론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다 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온라 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과 연 계한 청정진도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호남신문 5



### 완도군. 규제애로 해소 '적재적소' 가동

농촌공동체 혁신파크 내년 준공…농촌활력 기반 사업 적극 추진

해남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지역 자 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 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0년부터 4년간 총 70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에코푸드 시 스템으로 완성하는, 에코 해남'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농업 확산 시스템 구축과 유기 식품 성장기반 확보, 지역 공동체 활 성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 침으로, 해남형 청년농업 협동농장, 공동체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게 된다. 농촌공동체 혁신파크는 폐교된 황

산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하게 되며, 귀 농인 지원과 푸드 마케팅, 농산물 가 공 공방 등이 위치한 거점 공간으로 마련된다. 19만 8,000㎡ 규모의 농촌 공동체 혁신파크에는 유기가공 공방, 온라인 미디어 창작실, 생태농업 교육 장, 농촌공동체 조직 입주 공간, 다목 적 행사마당 등이 공유 시스템으로 운

영될 예정이다.

특히 유기먹거리 가공 공방은 농가 의 생산품을 습·건식, 밀키트, HMR 등 2,3차로 가공하는 시설을 마련, 수 요가 늘고 있는 유기식품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체 전문 교육을 비롯해 예 비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기 숙형 생태농업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 다. 공동체 혁신파크는 내년 준공 예 정으로, 현재 황산고에는 신활력사업 센터가 개소, 운영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은 '적재적소' 라는 문구를 내걸고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 재빨리 현장을 찾아가 '적', 적극적으로 의견 을 수렴하고 '소', 소기에 규제를 개선 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군민이 체 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 해 군민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 터 운영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관 련 부서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 체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 취했다.

농공단지의 한 입주 업체 대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에서 찾아와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하여 한시름 놓았다."면 서 "앞으로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찾 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군 관계 자들과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싶 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